개관 10주년 기념전… 상설 전시 새단장 가동

ACC '어린이문화원' 체험형 전시·콘텐츠 강화

체험관, 신체 활동 중심 '우리 모두의 집…' 선봬
특별전 '판타지 인벤토리' AI 결합 게임형 실현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어린이 특별전시와 어린이체험관 상설전시를 새롭게 단장했다. 사진은 어린이 특별전시 '판타지 인벤토리'에서 유영아 학예연구사가 아이의 기억 인벤토리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왼쪽), 어린이체험관 상설전시 '우리 모두의 집, 아시아'를 방문한 어린이 관람객들 모습.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한 어린이 특별전시와 어린이체험관 상설전시를 새롭게 단장해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체험 공간을 확충, 어린이들이 더욱 즐겁게 아시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어린이체험관 자연과 생활 영역의 신규 전시 '우리 모두의 집, 아시아'는 아시아의 자연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집'이라는 전제를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자연과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이를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기획, 생태 탐험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시는 바다와 갯벌, 습지와 호수, 초원과 숲, 사막과 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연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어린이들은 놀이체험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삶의 지혜와 오늘날 더욱 중요해진 생태적 가치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다.

전시 공간은 총 3개 영역이다. 도입부에서는 지구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핵심 개념과 함께 가난·차별·환경오염·전쟁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연합(UN)의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살펴본다.

이어 본 전시에서는 해양·습지·담수와 육상 생태계를 대표하는 아시아의 자연 및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을 망라해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한 신체 활동과 양방향 콘텐츠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공간에서는 전시 관람을 마친 어린이들이 자연을 탐험하며 느낀 점을 여행 일기에 적고 자연과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실천다짐을 나눈다.

이어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는 개관 10년의 기록을 되짚어보고 미래를 상상하는 어린이 특별전시 '판타지 인벤토리'가 지난달 개막, 내년 3월 2일까지 열린다. 게임을 즐기듯 이뤄지는 이번 전시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과거의 기억을 모아 미래를 구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설아, 천영록, 표인부, 루카스 실라버스, 장전프로젝트(장준영·전지윤), 황문정, 소보람, 이연숙 등 총 8명의 작가(팀)가 참여했다.

총 9개 퀘스트로 꾸며진 판타지 인벤토리는 프롤로그인 '기억의 통로'에서 1개의 이미지를 선택해 자신만의 출입증을 만든 뒤 미래를 구할 기억의 아이템을 모으는 임무를 수행하며 활동을 기록한다.

먼저 '미래 기억의 서'는 전체 전시 시나리오를 인공지능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작품으로, 이번 전시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판타지 캐릭터 캠프'에서는 거친 여정을 떠나기에 앞서 가면을 만들고, '아이의 기억 인벤토리'에서는 기억을 모으기 위해 가져온 물건을 물물교환한다. '기억의 초원'에서는 기억의 초원을 되살리기 위해 이파리에 소원을 적어 초원에 붙이고, '기억의 숲'에서는 과거 이 곳에 살았던 동물과 식물 등 여러 정령의 기억을 찾아 적는다.

'추억의 낱말'에서는 인공지능의 물체 인식 기술을 접목해 공을 치면서 지난 10년 동안 어린이문화원에서 진행한 1000여 종의 전시 및 공연, 행사, 교육콘텐츠 자료를 엿볼 수 있다.

또 '인공지능 루니'는 기억의 초원을 지키는 수호존재 루니를 깨우기 위해 어린이들이 빙하 요정 하양이의 춤을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기억의 강'은 얼어붙은 강 표면을 문질러 지난 10년 동안 어린이문화원을 다녀간 어린이와 가족들의 사진으로 과거를 들여다본다.

마지막 '기억의 전당'은 어린이문화원 10년 동안의 공연 콘텐츠를 생명의 근원인 미생물과 그리스 신화를 조직해 태초의 상상 속 기억을 조명, 미래를 구할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9개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면 에필로그 '미래 기억 대장간'에서 바코드 리더기에 찍힌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기억이 담긴 행운의 참 팔찌나 열쇠고리를 만들 수 있다. 1000번째, 2000번째처럼 특별한 번호의 참여 관람객에게는 이연숙 작가가 만든 미래 기억의 링이 증정된다.

김명규 사장은 "어린이문화원 개관 10주년을 맞아 과거를 기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체험형 전시를 새롭게 선보인다"며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통해 아이들이 아시아 문화와 관련한 중요한 주제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체험관 입장료와 '판타지 인벤토리' 전시 관람료는 각각 14세 미만 5000원, 14세 이상 3000원이며, 2개 통합 관람하면 할인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사진=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선이 안겨주는 다채로운 울림들과 심상

박승순 화가, 영은미술관 순회전
28일까지 광주 무등현대미술관
'선'과 '색'에 몰입한 작품 선보여

무등현대미술관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영은미술관과의 협약을 통해 마련된 순회전을 열고 있다. 순회전은 추상화가 박승순씨의 작품으로 꾸며진 가운데 지난 11월 15일 개막, 오는 28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1전시실에서 '선 그리고 색, 선율추상(旋律抽象)'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다.

캔버스 컬러 작업과 나무 콜라주 등 선과 색은 물론, 에너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미술이라는 장르 안에서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 중, 가장 본질적인 물음들을 탐구하는 동시에 '아름다움'에 대한 고찰을 해온 만큼 특별히 '선'과 '색'에 몰입한 작품들을 출품했다.

'도시-다이아몬드'

작가에게 '선'은 화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색'은 작품의 요소로서 어떤 역할을 하며 관람자들에게 어떠한 심상(心想)을 불러일으키는지. 이러한 작가의 고민을 거쳐 탄생되는 선과 색의 다채로운 울림들은 '선율추상'(Melodic Abstraction)이라는 키워드로 제시된다.

특히 작가는 캔버스와 나무 오브제 위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색채의 선과 면을 통해 작동하는 선과 색의 에너지는 전시장 안에서 공명(共鳴)하며 리듬을 만들어내는 한편, 관람객들의 시선과 동선에 따라 변주되며 심미적 장면들로 각인된다. 작가의 작품에 구체적인 형상이 제시되지는 않지만, 제목을 통해 제시되는 도시, 공간, 빛, 그리고 어머니 등의 키워드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이끌어 내고 감성적 교감을 유도한다.

이런 교감은 또한 작가의 작품이 세련된 추상의 형식 논리를 지향하는 듯하면서도, 일면 푸근한 한국적 정서와 감성을 함께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캔버스에 오일, 아크릴이라는 서양의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며 현대적인 감각을 보여주지만 그 너머에 은은하게 우리 고유의 노스탤지어를 환기시킨다는 점도 작가 작업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로 읽힌다.

박 작가는 "봄은 다가오는 중인데, 물길 따라 집에 다다르니, 어머니의 벽에는 매화 향기가 그윽하다. 때로는 콜라주(collage) 기법이 간결한 사고를 유도하거나 자유로운 면 놀이의 기쁨을 선사한다"면서 "나는 '침묵의 장(場)'으로 조형화한 추상 작업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전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정시공모'

5개 사업 23억5000만원 규모

전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정시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에는 전남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총 5개 세부사업, 23억5000만원 규모로, 공모 추진에 앞서 전남의 지역적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분야별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25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의 경우 지역성·신작·후속활용을 중심으로 사업 체계를 재정비했으며, '창작공간지원'은 공간 요건과 유형별 사업내용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자율기획형'은 발상의 전환, 창발적 실험을 핵심 방향으로 재구조화해 과정 중심의 평가를, '공연장 협력 예술단체 지원'은 육성 유형의 지원규모를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연장-단체 간 협력도 평가를 각각 강화했다.

지원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2024.12.1.이전)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이다. 내년 1월 5일부터 16일 오후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행정, 서류, 인터뷰 심의를 거쳐 2월 12일 재단 누리집과 NCAS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재단은 사업별 내용과 지원방법을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를 권역별로 진행한다. 서부권은 9일 오후 2시 남악복합주민센터 공연장(무안), 광주근교권은 10일 오후 2시, 해동문화예술촌 오색동(담양), 동부권은 13일 오후 2시 전남동부지역본부 이순신강당(순천) 등에서 갖는다.

또한 일부 집중지원 사업(지역특화콘텐츠개발·창작공간·자율기획형·공연장협력예술단체 지원)은 15일 오후 2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한다. 문의 061-280-5822~25.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비밀들은 사실 생기와 탄력을 주거든요"

조성국 동시집 '들키고 싶은 비밀' 출간…톡톡 넘치는 '동심' 발현

시와 동시에 주력하고 있는 광주 출생 조성국 시인의 동시집 '들키고 싶은 비밀'(상상 刊)이 최근 나왔다. 시인은 표제시에서 밝혔듯 사는 것이 '유리창에 쓴 낙서들이 점점 드러나'는 일인 것처럼 비밀을 숨기지 않고 누군가에 들켜서라도 소통하며 온기가 살아있는 세상을 꿈꾼다.

더욱이 천진난만한 동심이 훼손돼 가는 요즘, 시인은 '얼굴 화끈 달아오르며 말 못 했던 하트 표시는 그냥 놔두었다'고 한다. 상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가는 통로가 막힌 세상살이의 우회적 바람으로 드러낸 듯 싶다.

시인의 말에서 "비밀을 들키기 위해 떠들어댔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비밀은 굳이 감추기 위해라기보다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희망회로의 발동으로 읽힌다. 시인이 간직한 비밀은 모두 삶의 생기이자 탄력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시인에게 이는 기존 관념의 벽을 허무는 작업일 지 모른다.

아동문학가 권영상씨(전 한국동시문학회 회장)는 추천사를 통해 "현실이 아프고 고단해도 조성국 시인의 동시는 다른 한쪽에서 웃음을 준비한다. 그의 동시는 통념에 사로잡혀 안주하지 않고 끝없이 벽을 허무는 작업"이라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동시 '연필과 볼펜'을 통해서는 어린이와 어른을 대별해서 시적 형상화를 이루고 있다. 시인이 이 시편을 통해 어린이는 자주 고쳐야 할 삶이고, 어른은 틀려도 고칠 수 없는 삶으로 비교, 접근하고 있는 시인의 발상이 유쾌하다는 생각이다. 세대에 따라 연필을 쓰는 이유와 볼펜을 쓰는 이유가 간결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또다른 동시 '갯벌 체험'에서는 갯벌의 특성을 삶에 비유, 시인의 시심을 추측 가능하게 만든다. '오른발을 떼면 왼발이 푹 빠지고 왼발을 떼면 오른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 복잡한 우리네 삶의 단면을 드러낸다. 세상이 온통 질퍽한 공간이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한 두번 빠져봤을 노릇이다. 시인은 '천천히 배를 깔고 기어가야' 겨우 수렁같은 형국으로부터 벗어나는 만큼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마음만큼 간단치 않다는 것으로 시적 형상화를 통해 보여준다.

이번 동시집에는 삶의 다양한 모습이 녹아 있는 웃픈 동시편들도 수록, 눈길을 붙잡는다.

'보호색 공부'를 비롯해 '책 읽는 햇볕', '나 이번 주말 바닷가에 간 이유', '연필과 볼펜' 등 제4부로 구성됐으며, 분주한 일상 틈틈이 창작해온 동시 45편이 실렸다.

고선주 기자 rainidea@